

“ 인생의 무거운 짐 ”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을 자인하고 피조물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져야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로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크리소스톰 목사를 황금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소스톰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 빛이 비치지 않음지언정 크리소스톰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고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옥여 씌운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질병,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한국장로신문 [1389호] 2013년 11월 16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01, 11:20am]	[Rev. Euichang Kim, PhD]
Praise & Worship	Praise Tea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 Hymn	25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al Prayer	Mrs. Lumie Hwang
Hymn	263
Scripture Reading	1 Pet 1:18-25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Our Faith, Hope, and Love (1)”
* Hymn	484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h2 style="text-align: center;">우리의 비전 (vision)</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p>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경,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태(말라위), 김영호(성령(러시아), 허창범(현대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베(인도), 스프로토(보이),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비샤,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롬, 수리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민(홍성인(필리우), 이재울(백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연(미디가(스리		

제30권 제46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20년 11월 15일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p> <h1 style="margin: 0;">서울교회</h1>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노라 ”

■ **고전 4:14-16**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주의 종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 교회였고 바울은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에 능한 아볼로까지 합세하여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장에 막대한 역할을 감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활동하였고, 그리스보와 소스데네 그리고 스테바나 등 유력한 지도자들을 배출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버린 분쟁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편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적인 것보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더 치중하였고 음행 등 윤리 도덕적 타락에 무덤덤한 상태로 지나갔고 사도의 가르침이나 심지어 부활신앙까지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목사와 성도는 부모자식관계로 여겨라
 사도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빈정거리는 듯한 가혹한 책망을 하며 사도들이 사람들과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된 참혹한 현실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위험한 죄, 즉 교만 죄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모든 복락을 누리는 절경임을 지적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노라”사도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로 설정하고 편지를 쓰는데 이것은 매우 타당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낳은 자기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망과 바르게 하는 교훈 역시 절실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를 전하는 자라야 합니다. 그 일을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2. 일반 스승보다 아버지가 더 낫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듯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15절).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의 목회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 만 명의 선생보다 아버지가 더 낫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자녀들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라고 말씀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단순히 산고의 고통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회생을 다 쏟아부으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수고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목사의 기쁨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요2서 4절).

맺는 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듯이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16절)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까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없이 떠도는 것 같아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천국시민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 왕실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조정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이관규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히 4:16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30(시 67)
* 송 영 Doxology	1(1)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31(375)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4:16-21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569(442)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이엔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이로 밀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산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전 4:17)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96:1-2
찬 송	381(425)
기 도	차영도 집사
성 경	사 43:1-3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두려워하지 말라”
	설 교 자
* 찬 송	382(432)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I부: 주경자 권사 II부: 안선희 권사
성 경	롬 14:8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설 교 자
기 도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이번 주(11.16-21 오전5시-6시)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손달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아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서울교회로 소생토록 기도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9주년 감사주일** / 다음 주일(22일)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29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와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동안 참여 못했던 성도들에게 독려하시어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주일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 장 례

1. **故 이음전 권사(4교구 박명희 권사 모친, 한중표 집사 장모) / 8일 별세, 10일(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378명	464명	1,842명	426명	1,322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11/0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08일	헌 금	43,375,000	
	특별예배비		2,000,000
	교회학교운영비		598,600
	선 교 비		700,000
	구 제 비		500,000
	출 판 비		330,000
	연합사업비		1,000,000
	복리후생비		5,891,000
	통 신 비		250,000
	수도광열비		60,000
	차량유지비		2,004,860
	사무용품비		113,100
	소모품비		1,617,100
	잡 비		14,786,300
	환경유지비		1,540,000
	수선유지비		8,281,800
	식당운영비		610,340
	합 계	43,375,000	40,283,10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